

서문

왜 하필 마가복음인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치고, 마가복음 공부에 대한 변명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자.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과 연구 논문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도 또 마가복음이라고?

첫째로 마가복음이 학계에서 매우 중요시 다루어지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신앙/신학적 취향, 호불호를 떠나 이 짧은 복음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신앙인의 양심상 소위 배웠다는 학자들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쓰고 또 쓰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나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하지 않을까?

마가복음은 서기 70년 경 4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인 경전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였다는 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이로부터 마가복음과 Q 복음의 “두개 자료설”(two source hypothesis)이 등장한다. 이보다 먼저 쓰인 초기 바울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또 바울신학이 당시 초기교회의 예수 이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일인칭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바울서신과 복음서 사이에는 분명 그 문학형식에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이유로 이렇게 중요한—역사적 의미/가치라는 면에서—마가복음이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홀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후에 마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한국교회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유행했던 쪽복음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마치 초기 유대교/기독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값비싼 성서를 누구나 소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일부라면 모를까.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이 많이 읽히던 시절이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정했을까? 그 중요성을? 출판사는 아닐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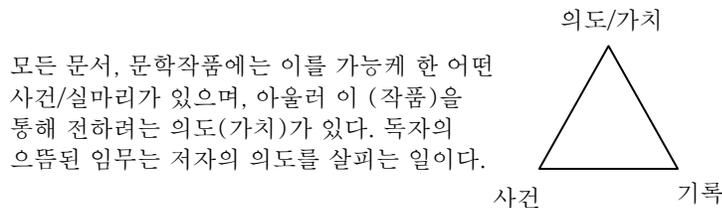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 책을 쓰는 진짜 이유는 마가복음이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재 역할을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교리를 중시하는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교회 내에서 복음서 보다는 아무래도 바울서신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바울서신은 (이미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을 전제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처럼 예수의 말을 되풀이 하지 않고, 예수의 삶과 업적을 그들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신학화하는 작업에 고심한 흔적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복음서들, 특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원시적 형태(raw materials)로 제공한다. 저자의 의견이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역사적 사실을 동영상에 담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가복음 역시 그 나름대로의 신학하기를 내포한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예수의 복음을 일인칭 형식으로 전한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할 때, 그 내용을 되집고, 다지고, 신학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셈이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최소한 그만큼의 자유와 희망이 독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의 권리이자 의무다. 역사에 부응하고 시대를 읽는 눈이다.

나는 이 책을 기술해 나가는 과정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전제 조건이란 기독교는 경전(성서)에 기초한 종교라는 점이고, 이 경전은 구전을 거쳐 글로 쓰였다는 점이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을 서문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이름을 내건 모든 신앙공동체와 단체는 그 뿌리가 성서와 전통에 기초해야함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크리스천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예수 이야기를 복음서처럼 일인칭 형식으로 직접 전하든 혹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학적 변론을 나누든, 예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글로 남겨져 경전에 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공동체 내에 어떤 전통으로 자리잡아 구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전 15:1-3).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전통은 그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레위기가 거의 읽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글과 언어, 이것들은 소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을 필요로 하는 쌍방 간에 그 언어/글에 대한 어느 정도 공통된 이해를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성서해석에는 말과 글, 곧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서언어—여기서는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은 글이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사로잡혀 그 뜻과 의도를 살피지 못한다면, 올바른 의미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글의 궁극적 목표인 소통(communication)이 온전히 달성되지 못한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글이란 어떤 사건, 경험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그 의미, 뜻을 전달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복음서의 글/기록을 통해 이 이야기를 읽는다. 이 글이 사진을 찍듯, 실제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혹은 저자의 경험을 나름대로 독특한 문학적 장르(genre)에 담아 전할 수도 있다. 사건의 진위(眞僞)를 떠나 보다 절실한 물음은, 왜 이 사건과 경험을 기록할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기록의 궁극적 목표가 있고, 따라서 독자는 그 의도를 살피고, 경험할 수 있어야 저자와 독자 간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독자는 기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저자의 의도를 유추한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해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뜻과 의미는 저자나 독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머무르지 않는다. 역사적 저자가 무슨 의도로 작성했든지 간에, 그 글에서 후대 독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의미를 구하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되나? 아무 해석이나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간단히 말해 그 이해가 좁게는 성서 자체에 그리고 보다 넓게는 기독교 전통에 부합해야 하며,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이 되는 해석이라야 한다.

성서와 전통에 부합한다함은 그 해석이 성서와 전통에 근거한다는 말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 된다는 것은 성서와 전통이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률 넘어 비종교적 언어로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자를 성서와 성서해석의 근간이 되는 전통성/정체성(stability)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 이해가 새로운 환경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곧 성서의 유동성, 적응성(adaptability) 문제다.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모든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키는 해석이야말로 전도를 목표로 하는 예수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막 3:13-15; 마 28:18-20). 이렇게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야말로 독자에게 유익한 해석이며, 또한 비기독교인, 비종교인 이웃들에게도 적용될 때 비로소 그 효능이 드러난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른바 문학적 이해, 역사적 접근, 신학적 해석이다.

첫째로 **문학적 이해**란, 앞에서 말한대로, 성서가 문자와 글로 쓰였다는 점에 기초한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헬라어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 해석을 갖추어야 하고, 글이 갖는 독특한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서가 문자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자적(literal) 해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은유적(metaphorical), 상징적(symbolic) 의미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모든 소통에 있어 뜻(의미)이 기록에 앞서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선택의 기준은 뭐니뭐니해도 성서의 기능에 기초해야 한다. 성서가 내게, 독자들에게 궁극적 메시지를 전하는가? 독자의 삶에 변화를 주는 메시지인가?

오병이어를 놓고 보자. 이것이 정녕 문자적으로 가능한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굶주리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다. 과거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은 현재는 무의미하다. 만일 기적적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혹은 예수는 신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메시지 역시 독자들과는 무관하다. 단지 예수는 초인간적 존재였기에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예수의 제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대단히 비성서적인 발상이다(요 14:12).

둘째로 **역사적 접근**이란 본래 성서가 쓰였던 시기—그 역사적 상황 하에서 성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역사적’이란 말은 비단 시간의 연속적 흐름(diachronic approach) 속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연계된 일련(synchronic approach)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사상적 측면을 총망라해서 살핀다는 의미다. 모든 글(편지 그리고 소설 조차도)은 독특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 글이 탄생한 시대적 상황을 살피는 것은 그만큼 성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공헌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하느님 나라(혹은 천국)란 개념은 흔히 교회에서 생각하는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1세기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하느님 나라란 당시의 로마제국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를 현세(現世)과 내세(來世)의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긴박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예수님의 치열한 정치적 입장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째로 **신학적 해석**이란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는 말이다. 흔히들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신학은 학문의 경지고 신앙은 교회생활이라고 놓고, 이를 양분화하게 되면 본래의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불교를 빗대어 말하자면, 신학은 교종(敎宗)에 해당하고 신앙은 선종(禪宗)에 비유할 수 있다. 안셀름(Anselm)의 말처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과 믿음, 지식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또 분리해서도 안된다.

신학적 해석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신학 다시하기(Doing Theology Anew)이다. 이걸 또 무슨 말인가? 신학이란 말 자체도 애매한데, 신학하기 거기에 신학 다시하기?

신학 다시하기의 출발. 신학하기(Doing Theology)라는 말이 일견 낯설게 들릴 것이다. 대부분 독자들은 아마도 처음 접하는 말일텐데, 간단히 말해 신학(神學, theology)이라는 말을 풀어쓴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신학(theology = theos + logos)이란 두 헬라어의 합성어로 ①신의 생각/이야기, 혹은 ②신에 관한 생각/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또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신을 창조자라고 고백할 때, 인간은 단지 피조물의 위치에서 있을 뿐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형성된다. 신의 이야기란

기껏해야 인간이 이해하고 그려낸 신의 모습이다.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해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신을 그려냈다. 슈퍼맨. 그것도 모자라면 울트라 슈퍼맨이다. 결국 자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신학은 궁극적으로 인간학이라는 이해(Feuerbach)다. 곧 사고와 초점의 전환이다. 하느님 이야기에서 우리들 이야기로.

신학하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동안에는 신학을 공부한다(배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내가 모르는 무엇에 대해 선생/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도식이다. 그러나 신학/신앙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학문이 아니다. 안다는 것,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느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그 자체로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약 2:19), 도적과 다를 없다(렘 23:30)고 성서기자들은 고발한다. 남미 해방신학의 도전으로 실천하는 신학, 프락시스(Gr. *πρᾶξις*, *praxis*=> *practice*)를 요구받게 되었다.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신학 다시하기. 그러면 왜 신학하기를 다시하는가? 기존의 신학하기가 내게 긍정적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지식과 답을 내게 주입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내 실존적 물음(아픔)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신학을 한다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교모임, 취미활동과는 사뭇 다르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 투자와도 다르다. 오늘을 의미있게, 책임있게 살고자 함이다. 그래서 내 삶을 올인(all-in) 하도록 만드는 삶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것이 신학하기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우리가 쓰는 말로 신학 다시하기다.

이런 이해는 어디서 오는가? 성서와 전통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성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미드라쉬(*מדרש*)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라는 뜻이다(삼상 9:9). 영생을 구하는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는 말한다. 성서에 무엇이라 쓰였으며, 이를 어떻게 읽느냐?(눅 10:25-26). 아무 생각없이 읽으면, 아무 답도 얻지 못한다. 답(성서)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없음이 문제라는 말이다. 신학 다시하기의 출발은 나를 들여다 봄에서 비롯된다.

1. 사색에서 행동으로
2. 수동적 배움에서 능동적 삶으로
3. 주입식 교육에서 맞춤형 신학하기로
4.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5.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전반적이고 서론적인 이야기로 마가복음 이해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리한다. 곧 “예수의 복음,” “죄와 회개,” “하느님 나라,” “성령과 더러운 영,” “기적과 병고침” 등이다. 이 용어와 개념들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꾸준히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일괄적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예수가 갈릴리와 유대지방,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다룬다. 피지배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갈릴리는 늘 지배체제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감시하에 놓여있다.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간의 분쟁(2:1-3:6)은 마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의 색채를

결정짓는다. 예수의 신학과 정신은 한 마디로 ‘경계선 없애기’다. 경계를 지어놓고 지배하려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 배후 세력인 로마제국과 예수의 정면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3부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까지를 모두 다룬다. 예수의 운명은 이미 그 첫 공생애 때부터 정해졌고, 이제 남은 길은 주어진 운명을 답습할 뿐이다.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여정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의 무모할 정도로 예루살렘 권위에 대한 도전(성전타파)은 차라리 그의 복음, 가치관이 내뿜는 가쁜 숨결의 연속이다.